

‘전주 소리축제’ 세계와 만나다

12일까지 28개국 200여개 공연... 경기전 특설무대 첫선 쇼팽&아리랑·판소리 다섯마당·안숙선의 토끼타령 등

전통음악인 판소리에 뿌리를 두고 세계 음악과 벽을 허무는 소리의 향연(響宴)이 전주에서 펼쳐지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 세계 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과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2014 전

주 세계 소리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대마디 대장단’을 주제로 28개국의 200여 개의 공연을 선보인다. 판소리, K-Pop과 전통음악의 만남, 산조, 월드뮤직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개막작 창작뮤지컬 ‘청(淸) 얼라이브(Alive)’는 판소리에 뮤지컬과 콘서트, 영화적 요소를 접목시켜 새로운 형식의 판소리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올해 축제에서 가장 공을 들인 공연 중 하나로 ‘쇼팽&아리랑’을 꼽을 수 있다. 한국과 폴란드 수교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폴란드 음악제 예술감독과 클래식 연주자들을 초청해 쇼팽 음악과 아리랑을 재해석한 공연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폴란드 전통악기로 연

주하는 새로운 아리랑과 우리 전통악기로 들어보는 쇼팽 음악을 만나 볼 수 있다. 중견 명창들의 목직한 판소리 다섯 마당이 무대에 오른다.

올해 판소리 다섯 마당에는 김연(홍보가), 장문희(적벽가), 김세미(심청가), 윤진철(적벽가), 박춘평(춘향가), 송재영(춘향가) 등 6명의 명창이 원숙한 무대를 선보인다.

젊은 소리꾼들의 패기를 느낄 수 있는 무대도 마련된다. 이소연, 유태평양, 한나리, 조희정, 김이나래 등 떠오르는 신세대 소리꾼들은 무대에서 신명나는 판놀음을 펼칠 예정이다.

국립국악원 안숙선 명창과 젊은 명창들이 창곡 판소리 ‘수궁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안숙선의 토끼타령’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소리축제 조직위는 축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올해 처음 전주 경기전에 특설 무대를 설치해 대형 공연을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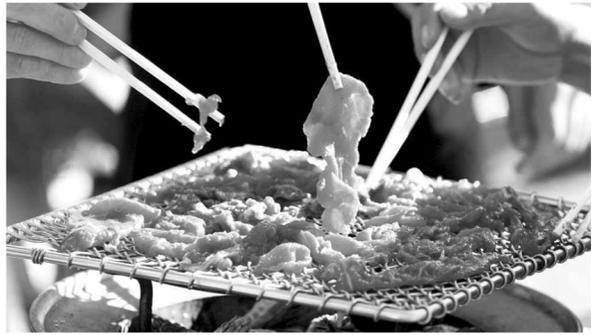


행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11개국의 전통악기가 한 무대에 오르는 국립극장 프로그램 ‘문화 동반자’를 비롯해 서아프리카 그리오 가문에게만 전수되는 악기 ‘코라’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소나 자바테’ 등 특설 무대 공연은 수준 높은 아티스트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설무대에서는 9일부터 폐막일인 12일까지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화려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영국의 저명한 월드뮤직 전문지 ‘송라인즈’(Songlines)가 선정한 ‘국제 페스티벌 베스트 25’의 하나로 3년 연속 선정(2012~2014)됐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전남 소식



지글지글 광양불고기 맛보세요

숯불구이축제 12일까지

올해로 13회를 맞는 ‘광양 전통숯불구이 축제’가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광양읍 서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빛과 꽃, 그리고 맛의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숯을 이용한 광양의 대표적인 음식인 숯불구이와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자연과 빛이 어우러지는 볼거리 등도 풍성하다.

9일 전야제는 풍물놀이 길라잡이와 포에버윈드 오케스트라 공연, 코스모스 가요제 예선, ‘은어를 잡아라’ 체험행사 등이 진행된다.

10일에는 광양 숯불구이 맛을 가리는 ‘맛 대결’을 비롯해 듀엣 ‘해바라기’의 공연과 함께 관광객들의 희망을 소원하는 대형 풍등(風燈)을 날려 가을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11일에는 색소폰과 빅밴드 공연, 읍·면·동 이장단 노래자랑, 광양 시립국악단 공연과 김수희·심신·한서경·박진석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을 초청해 축하 공연이 열린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광양시 품물굿 한마당을 비롯해 사생대회, 청소년 페스티벌, ‘도시의 아이들’과 그룹사운드 ‘세븐 드림즈’의 가을맞이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전남자연환경연수원 장애학생 초청 행사

병풍산 숲길체험 등 자연 만끽

국제 청소년교육재단(이사장 이강일) 전남 자연환경연수원은 8일 지역 사회 재활시설인 광주 엠마우스복지관(관장 천노영 신부) 지도교사와 학생 30명을 초청해 환경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병풍산 숲길체험을 비롯해 환경 애니메이션 시청, 자연사박물관 견학, 천문대 과학관 견학, 계곡탐

사 등으로 이뤄졌다.

이강일 이사장은 “이번 환경체험을 통해 지적·자폐성 장애인 가족들이 병풍산의 가을을 만끽하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가족들과의 유대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자연환경연수원은 복지관 장애인 학생들에게 친환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3년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정읍시, 일자리 2만7000개 창출 종합대책 수립

마을기업 등 노력 취업 확대

공무원 신규 채용·공공근로 등

정읍시가 민선 6기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읍시는 민선 6기 동안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매년 5000여 개씩 2만7000여개(공공부문 2만4000, 민

간부문 3000)의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 식품특화 농공단지 기업유치, 기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설·확충 등을 통해 25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또한 사회적 경제의 주축인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저소득 취약계층은 물론 고령자들에게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양

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공무원 신규 채용과 노인 일자리사업, 공공 근로사업,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등 직접적으로 1만 8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또한 시는 경력단절 여성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과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기술인력 1100여명을 양성·지원해 기업의 구직난

해소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김생기 시장은 “민선 6기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들과 중·장년층들의 일자리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민선 5기 4년 동안 일자리 창출 목표 1만7000여개 대비 1만900여개를 창출한 바 있다. /정읍=박기성기자 parks@

남원 출신 김미곤 대장과 지리산 걷기 행사

11일 매동마을~금계 구간

남원 출신 산악인 김미곤(사진) 대장과 함께 하는 걷기 행사가 남원에서 열린다.

남원시는 11일 ‘지리산 둘레길’ 3구간에서 산악인 김미곤 대장과 함께 하는 ‘지리산 둘레길 가을을 걷다’ 행사를 연다.

‘지리산 둘레길’ 3코스는 매동마을에서 출발해 황금빛으로 물든 상량마을 다랑이는길과 등구재를 거쳐 금계까지 걷는다.

이날 행사는 김미곤 대장과 함께 걸으며 ‘숲을 통한 삶의 의미’ 강연과 팬사인회, 등산장비 사용방법 및 위급상황 조치법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이나 동호회는 참



가비 1만원을 납부하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지리산 레저 등산학교 010-6622-2406)

남원시는 증가하는 등산인구의 확대에 따라 지난해부터 안전한 산행문화 보급 등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지리산 레저 등산학교’를 개설해 운영중이다.

한편 김미곤 대장은 에베레스트와 로체를 한국인 최초(세계 6번째)로 연속등반에 성공했다. 현재 히말라야 8000m급 12개 봉을 등정해 14차 완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옛 남원역 코스모스 만개

옛 남원역이 최근 코스모스가 만개한 옛 남원역 사 부지내 철길을 찾아 가을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남원시민들이 최근 코스모스가 만개한 옛 남원역 사 부지내 철길을 찾아 가을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나주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가/무인텔

- 나주시 중앙동 1층 상가 대지 423㎡ 건물93.6㎡, 의류매장, 식당 성업 중. 매 5억9천만
-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앞 4층 무인텔 대지 1,152㎡, 객실 20, 관리실 2, 매29억

농지/임야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3,514㎡(대지, 임야 포함) 4차선 국도변 2층 주거지역 자연녹지 매5억 2천만
- 나주시 송월동 택지지구 대지 778㎡ 상업지역 4차선 도로변 나주시청 앞 매 8억8천만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15,868㎡ 혁신도시 인근 생산관리지역 매 16억
- 나주시 관정동 전 7,547㎡ 매립지 2차선 도로변 농업지역 매 3억2천만
- 나주시 동수동 전 배 과수원 2,784㎡ 농업지역 농공단지 옆 매 1억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전 5,600㎡(주택, 측사 포함, 일부 유실수 식재) 매 1억 7천만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임야 6,774㎡ 나주호 입구, 선산 적합 매5천만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 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 30억원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 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매 17억원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전 26,450㎡ 대동 김나무 과수원, 자경, 임대시 고소득 보장 매 4억원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일조공인중개사

"간절함으로 승부하라"

병원 2층 3층 병의원 임대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면적 306.20㎡

- ♣수원동 1층 상가 매매 대방노블랜드 2차 인근 매매가 3억
- ♣금호동 1층 임대(보증금 1억 월400만) 시,비 있음
- ♣양산동 원룸 동남2차 뒷면 엘리베이터,풀옵션 편백 3월준공 매매가 7억3천
- ♣각화동 원룸 14개 주인세대 매매가 6억9천

나주혁신도시

- ♣나주혁신도시 근생 D9블럭 3층건물 매매 7억8천 (1층상가, 2,3층 주택)
- ♣나주혁신도시 근생용지 219평 매매 116,000만원
- ♣NH 공공임대8블럭 단지내 상가 매매 16평 2층 23,000
- ♣나주혁신도시 D-9 이주자택지 88평 매매가
- ♣나주 부곡동 토지 매매 세월지 매매 270,000만원

나주 혁신도시 리버빌딩,금화빌딩
스마트 플라자 상가 분양
혁신도시내 단독주택,근생용지 다량 확보
나주 혁신도시 내 우정사업본부 후문 진입로
☎ 010-4226-0504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치평동 6층 40억
- 쌍촌동 5층 15억(보1.7억 월700만)
- 품암동 5층 18.5억(보1.4억 월970만)
- 월계동 4층 17억(보2.2억 월850만)
- 상가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대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3억(사옥,병원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4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10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 상가 신축 용지
- 창고/공장 용지
- 전원주택용지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새재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